

# 광주 산업계 ‘중동 쇼크’ 비상... 수출 안전망 가동된다

### 유가·운임비 급등... 지역 기업들 경영 부담 ‘가중’

### 중기부, 1300억 투입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중동발 지정화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지역 수출기업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총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지역 산업계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7면

특히 중동 항로 운임 급등과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겹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의 물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긴급 수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

기업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출바우처 800억원, 물류전용 바우처 500억원 등 총 13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300여개 수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한 국제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최근 7주 연속 상승했고, 중동 노선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1TEU) 기준 4167달러까지

치솟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지역 제조업체들로서는 운송비 증가와 납기 지연, 거래처 불안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부품, 생활 소비재, 화학소재, 뷰티 관련 기업들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간접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광주지역 산업계에서는 중동 사태가 단순한 해외의 뉴스가 아니라 현실적인 경영 리스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중동 수출 물량 선적 일정이 지연되거나 운임 상승분을 자체 부담하는 상황에 놓였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압박도 커지고 있다. 환율 변동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더 빠듯해졌다는 목소리다.

이번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일반 수출바우처는 중동 피해 기업들 우선 선정에 시장 다변화와 해외 마케팅, 인중, 통번역,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

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광주지역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유럽 등 대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수출 경쟁력을 갖춘 지역 주력 산업군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전용 바우처도 현장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총 5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중동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국제운송 실적에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넓혔다. 해상·항공 운임은 물론 해외 창고 임대료, 폴빌먼트 서비스, 선적 전 검사비, 샘플 운송비까지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 전쟁 위험 할증료와 우회 운송비, 반송비 등도 일부 지원이 가능해 중동발 변수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대목은 ‘속도’

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존 3개월 이상 걸리던 선정 절차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장 평가를 생략하고 서면 평가 중심으로 전환해 행정 부담도 줄인다.

지역 경제계는 이번 지원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광주 수출기업들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동 리스크처럼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수출시장 다변화와 물류 대응 역량 강화, 정책 접근성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 속 지역 기업들의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



KT, 봄철 산불조심기간 긴급복구훈련 KT 직원들이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대비해 화재 대응 긴급복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KT

## 소진공-KOTRA, 소상공인 수출 경쟁력 강화 ‘맞손’

### 유망 소상공인 발굴·해외시장 진출 등 협력체계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손을 맞잡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진출 또는 해외 진출을 준비 중

인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 발굴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소진공은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정책자금,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며 코트라는 고유 사업 연계, 수출 멘토링, B2B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무역관 연계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전국 단위의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지역본부 간 협업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 희망 1000, 해외 박람회 공동 개최, AI 무역지원 센터 및 해외무역관 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협업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

## ‘두려움 없는 조직’...심리적 안정감 확보

### 광주경총, 내일 하동식 원장 초청 금요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힐리데이 광주호텔에서 하동식 변화혁신 아카데미 원장(사진)을 초청, ‘두려움 없는 조직’을 주제로 제11718회 금요초찬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동식 원장은 신라대학교, 경남대학교, 부경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한 변화경영 전문 컨설턴트로 삼성그룹과 LG, 한화,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과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전문가다. 현재는 전국 주요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미래 리더십과 조직 변화, CEO 마인드셋을 주제로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연은 변화가 어려운 이유, 활동적 타성과 현상 유지 편향, 강우석 감독 사례, 변화를 위한 조직의 각성과 실행, 와인 이미지로 본 조직 변화, 두려움이 만드는 부정적 결과, 실패 이력서 공유, 심리적 안정감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변화에 대한 저항 요인을 진단하고 조직 내 심리적 안정감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구성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질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이 결국 성과를 만든다”며 “두려움 없는 조직이야말로 진실한 소통과 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현재 920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지역 대표 경제단체로 경제·경영·문화·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매주 금요초찬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장수 초찬포럼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기업인들의 참여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장인화 포스코 회장, ‘탈탄소 전환’ 글로벌 협력 강조

### 세계철강협회서 탈탄소 로드맵 공유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세계철강협회 정기총회에서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 중요성을 역설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장인화 회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철강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 지정학적 리스크의 산업 영향, 탄소배출 측정 방식의 국제 표준화 등 중장기 핵심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15일 밝혔다.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수요 둔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탈탄소 전환’은 철강업계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과제를 강조했으며 포스코의 탈탄소 로드맵을 공유했다.

장 회장은 “글로벌 철강산업이 성공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루려면 탄소 저감 강제가 시장에서 정당



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세계 철강업계의 긴밀한 공조와 연대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튿날 열린 회원사 회의에서 세계철강협회에 수여하는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Sustainability Champion)’ 선정패를 수상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제22회 영산포 홍어·한우 축제**

양귀비꽃 미식 대향연

2026 05.22.(금) - 24(일) 3일간

나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양귀비꽃밭 일원

주최·주관: 나주시

영산포 홍어·한우축제 추진위원회